

가구특성별 육아친화마을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분석 및 정책적 함의¹⁾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 수요자의 일상생활의 장(場)인 지역사회, 가장 밀접한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고자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를 3개년 연속과제로 추진 중이다. 본고는 2019년 1차년도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육아친화의 개념과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육아지원적인 철학과 가치,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구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육아친화마을,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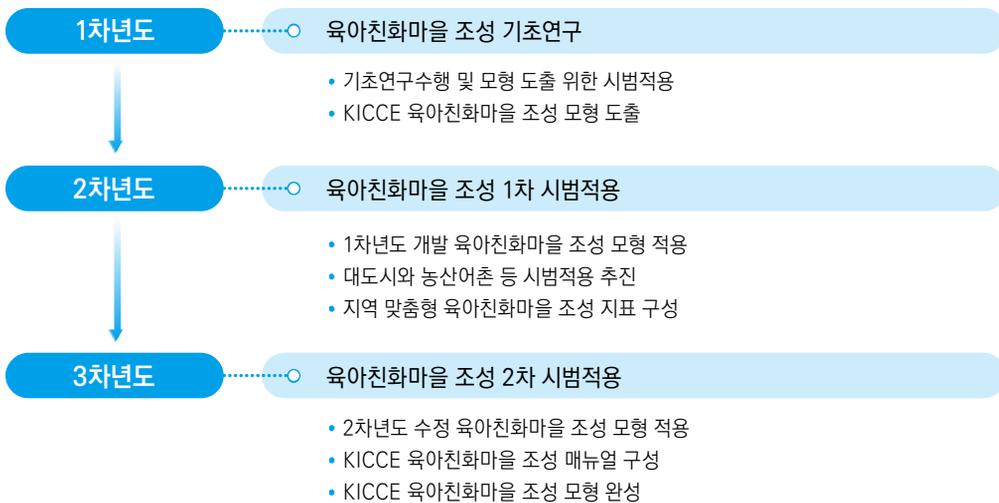
1. 서론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 전 방위로 추진 중이나 그 추이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수요자인 육아하는 부모는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접근에서 더 나아가 실제 육아가 이루어지는 환경인 지역사회 중심의 면밀한 정책 검토와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아이를 기르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표현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

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육아정책 수요자의 일상생활의 장(場)인 지역사회 내에서, 가장 밀접한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온 마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고자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를 2019년부터 3개년 연구로 기획하였다(그림1 참조). 2019년에는 육아친화마을에의 개념화와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하고, 더불어 육아친화마을 지표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구축하였다. 2020년에는 개발 모형을 정교화하고, 남양주 별내 신도시, 공주시, 광명시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는 2차년도 연구가 현재 수행 중이다.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 2019)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그림 1]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3개년 연도별 연구내용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24 [그림 1 - 2-1]임.

본고에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로 도출된 육아친화마을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자녀연령, 맞벌이 여부 등 가구특성에 따른 중요도 평가를 살펴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육아친화마을의 개념과 요소

가. 육아친화적 지역사회, '육아친화마을'이란

친화(親和)의 사전적 의미는 '사이좋게 잘 어울림', '서로 종류가 다른 물질이 화합함, 또는 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차용하면 육아친화(育兒親和)라는 성격은 아이 기르는 일(育兒)과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며, 서로 다른 여러 요건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

움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육아친화(育兒親和)' 환경이란 기존 유니세프의 아동친화, 가족친화와 유사하지만 '육아', '아이를 기르는 일'에 초점을 두어 아동의 권리뿐 아니라 부모권을 동시에 고려하며,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 인식 개선, 공동체적 지원 등을 또한 중요한 요소로 포함한다.

따라서 '육아친화마을'이란 서로 다른 여러 요건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를 지닌 주거단지, 즉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 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주거단지'를 의미한다.

나.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은 어떠한가 하는지에 대해 영유아, 초등학교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

모들의 심층면담과 설문조사를 토대로 그 요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유목화 가능하다.

1) 육아친화적 철학과 가치

육아친화적 마을은 마을에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歡待)가 필요하다. 육아를 존중하고, 육아와 육아하는 가정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층간 소음의 문제, 노키즈존 등의 문제로 표출되는 현상 안에 내재된 가치의 변화가 필요하다. 서투르고 부족해도 아이 다움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다. 또한 아이 뿐 아니라 아이 엄마를 배려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육아하는 가족을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육아친화마을은 성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육아친화 가치 공유 기회 확대를 희망하였다.

아이들 아이답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활발하게 놀고 이렇게 했을 때 조금은 큰 소리가 날 수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 내는 건 확실히 규제를 해야죠.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소리를 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분위기?(초등 부모 4)

‘배려할 거예요’ 할 때 저는 양쪽 측면을 다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서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비혼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배려하고 너희도 배려하자 양측의 것을 꼭 넣어주시면 좋겠어요(유아 부모 4).

2) 서비스 인프라

아이와 아이 기르기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병원, 교육·보육 시설, 공원, 운동시설 등이 근처에 있고,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기관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희망하였다. 또한 마을 내 사랑방과 같은 공간이 마련되어 품앗이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분위기가

구성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언제든지 믿고 함께할 수 있는 곳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활성화된 노인정과 같이 엄마들을 위한 공간 마련을 희망하였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병원이나 시설이나 문화 공간, 도서관, 미술관 다 있고, 저는 잘 가지는 않지만 키즈 카페 같은 곳도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OO은 육아친화적인 도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유아 부모 1)

지하철도 가깝고 지하철도 걸어서 갈 수 있고 소아과도 여러 개가 있고 일단 공원이 많고, 그 공원이 애들이 다 뛰어놀 수 있고 놀이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분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좋았던 동네라고 생각을 해요(영아 부모 5).

3) 물리적인 환경

육아친화마을의 물리적 환경은 유아차의 이용에 무리가 없도록 구성되어 있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실내외 놀이 공간이 충분하며,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아이와 함께 걸어 다니기 편한 곳을 뜻한다. 부모와 자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 녹지 시설이 필요하다.

시설을 만들 때 단지 아이만이 아니라 부모도, 결국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영아 부모 5).

평화롭고, 공원을 중심으로... 가족문화가 되게 형성되어 있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가 길로 연결되어 있는데 다 통해요. 횡단보도 없이 안전하게 아이랑 같이 킥보드,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중간 중간에 공원이 있어서 쉴 수 있고(유아 부모 2).

4) 인적네트워크

육아친화마을은 함께 키운다는 가치의 공유와

지지적인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역사회 내 인적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폼앗이와 같이 여러 가족이 모여 돌아가면서 아이를 위한 활동을 준비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아이의 돌봄 뿐 아니라 교육도 협력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육아공동체를 통한 폼앗이 육아, 공동육아 네트워크 지원인력과 함께 이를 위한 공동체 육아활동 거점 공간,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도 필요하다.

애들이 형제자매가 없다보니깐.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아이를 같이 키우다보면 자연스럽게 형제자매 있는 아이처럼 클 수 있잖아요. 그건 부모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그런 공간 프로그램 같은 걸 마중물 역할처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활성화를 시켜나가는 건 주민들의 몫이고(초등 부모 4).

저는 아빠들끼리도 육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맘카페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이 배우는데, 남편이 맘카페 가입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모를 만하기도 해요. 저한테 배우는 거 아니면 배울 데가 없더라고요(영아 부모 3).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엄마들이 필요한 거는 육아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밥 먹고 수다 떨 수 있는 거...엄마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수다 떨 수 있는 육아정이 필요하다(유아 부모 2).

이렇듯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는 철학과 가치, 서비스 인프라, 물리적 환경,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유목화 가능하며 그 내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요구를 지역사회, 마을을 중심으로 구조화하면, 양육하는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학과 가치를 토대로 보육(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 교통·보행 네트워크 서비스 인프라, 치안·안전



[그림 2]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8. [그림 II- 4-1]임.

서비스 인프라, 행정 서비스 인프라 등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고 지지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상태이다.

3. 육아친화적 요소 평가

육아친화적 요소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그 필요도에 차이를 보인다. 이와 더불어 맞벌이 가구의 요구 또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하는 부분이다. 이에 2019년 인천 서구 주민 208명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구의 특성을 기준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 평가결과²⁾를 살펴보았다.

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영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29.3%)',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27.9%)'가 중요한 가치로 나타났다. 유아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는 '자녀를 기르는 가

정을 배려(35.6%)',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26.9%)'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제시되었다. 초등자녀를 둔 경우도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38.5%)',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27.9%)'이 제시되었다. 맞벌이가구를 위해서는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27.4%)',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25%)',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지향(24%)' 등이 중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가 특히 영아기 자녀를 둔 경우에 높게 나타남은 이 시기 육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경험이 많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에서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지향'에의 요구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음도 일·가정 양립이 쉽지 않은 맞벌이 부부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나. 서비스 및 인프라

육아 지원 관련 서비스 인프라와 더불어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서비스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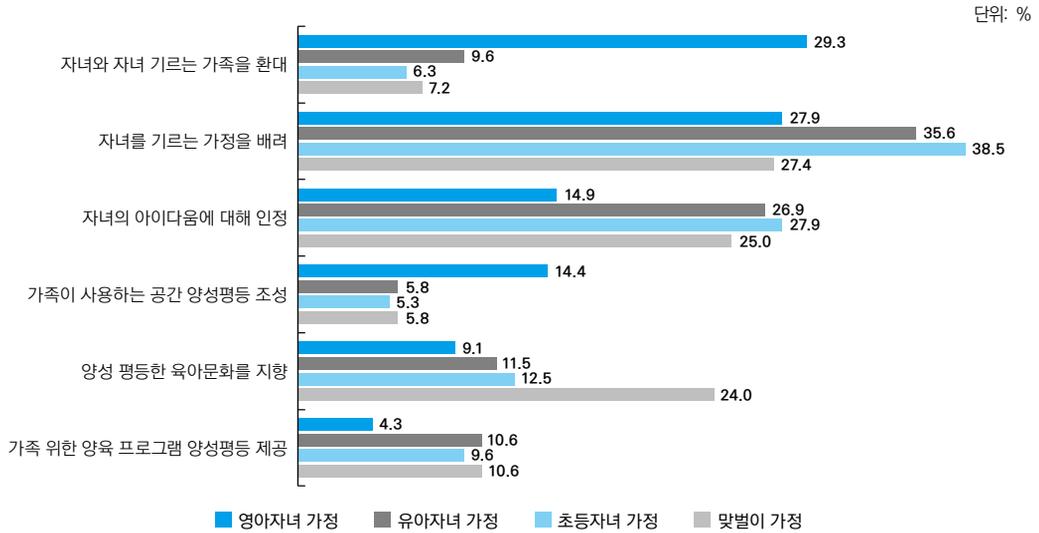
〈표 1〉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

단위: %(명)

구분	영아자녀 가정	유아자녀 가정	초등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29.3	9.6	6.3	7.2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한다	27.9	35.6	38.5	27.4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14.9	26.9	27.9	25.0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은 양성평등하게 조성되어 있다	14.4	5.8	5.3	5.8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한다	9.1	11.5	12.5	24.0
가족들을 위한 양육 프로그램을 양성 평등하게 제공한다	4.3	10.6	9.6	10.6
계(수)	100.0 (68)	100.0 (70)	100.0 (70)	100.0 (64)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01. 〈표 VI-2-34〉임.

2) 권미경 외(2019)의 조사결과 중 일부임.



[그림 3]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성과 진단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02. [그림 VI-2-5]임.

<표 2>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육아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

단위: %(명)

구분	영아자녀 가정	유아자녀 가정	초등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	46.6	21.2	11.5	22.6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	20.2	23.1	12.0	11.1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	1.9	21.2	11.1	5.3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	1.4	4.3	23.1	2.9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의 이용이 편리	5.3	10.1	9.1	7.2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의 이용이 편리	1.4	3.8	10.6	1.4
복합쇼핑센터/백화점의 이용이 편리	0.0	1.4	2.9	6.7
여가/문화 공간이용시간과 방법,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 이용편리	5.8	6.7	18.3	32.7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	17.3	8.2	1.4	10.1
계(수)	100.0 (68)	100.0 (70)	100.0 (70)	100.0 (64)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11. <표 VI-2-40>임.

1) 육아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

영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해야 함(46.6%)'이 단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다(표2 참조). 다음은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20.2%)',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병원까지 가는 길은 편리(17.3%)' 등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23.1%)’, ‘각종 육아지원기관 이용이 편리(21.2%)’, ‘놀이터의 이용이 편리(21.2%)’ 등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들이 제시되었다. 초등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이용이 편리(23.1%)’, ‘여가/문화 공간이용시간과 방법,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 이용편리(18.3%)’ 등

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맞벌이가구를 위해서는 ‘여가/문화 공간이용시간과 방법,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 이용편리(32.7%)’, ‘각종 육아지원기관의 이용이 편리(22.6%)’ 등이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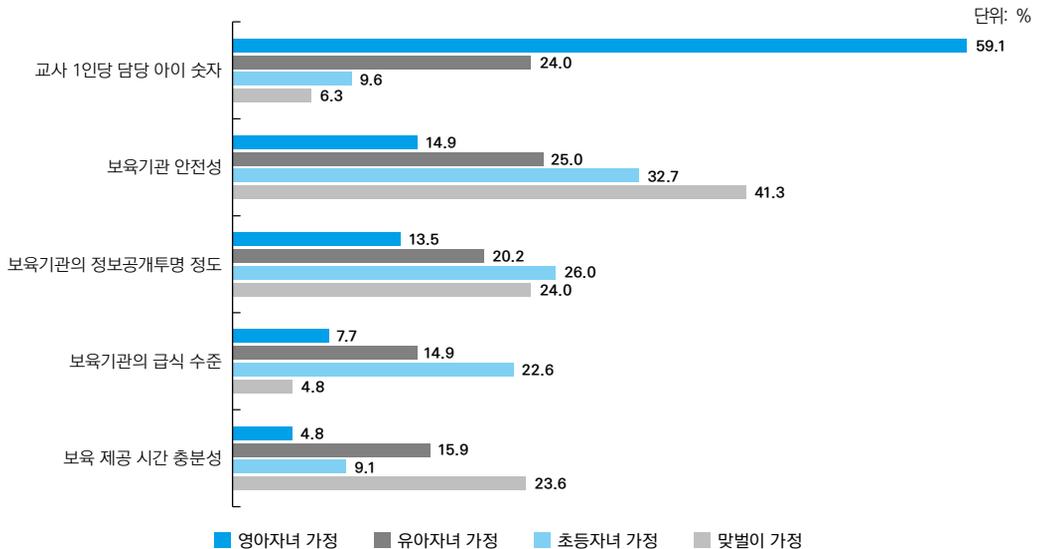
이를 통해 자녀의 발달 특징이 반영된 각 가구별 특성을 알 수 있다. 영아의 경우는 각종 육아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임을, 유아의 경우에

〈표 3〉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단위: %(명)

구분	영아자녀 가정	유아자녀 가정	초등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보육기관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숫자가 적절	59.1	24.0	9.6	6.3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14.9	25.0	32.7	41.3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13.5	20.2	26.0	24.0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	7.7	14.9	22.6	4.8
보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 근무하기에 충분	4.8	15.9	9.1	23.6
계(수)	100.0 (68)	100.0 (70)	100.0 (70)	100.0 (64)

주: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인전 서구’ 결과임.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06. 〈표 VI-2-37〉임.



[그림 4] 아이 기르기 좋은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중요성과 진단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06. [그림 VI-2-기]임.

는 활동성이 증가하는 특성으로 공원 녹지 공간의 이용이 필수적임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도서관의 이용을, 맞벌이 가구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및 인프라

영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보육기관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숫자가 적절해야함(59.1%)’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유아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25.0%)’, ‘보육기관 교사 1인당 담당 아이 숫자가 적절해야 함(24.0%)’이,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20.2%)’ 등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들이 고르게 제시되었다. 초등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도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32.7%)’,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26.0%)’, ‘보육기관의 급식수준 만족(22.6%)’로 고려되었다. 맞벌이가구

를 위해서는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41.3%)’, ‘보육기관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24.0%)’, ‘보육 제공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하기에 충분해야 함(23.6%)’의 순서로 강조되었다.

보육·교육기관에 대한 요구 또한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차이가 두드러진다(그림4 참조). 개별 돌봄에의 요구가 높은 영아 집단에서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한 중요도가 높았고, 장시간 보육이 예상되는 맞벌이 가구에서는 보육기관의 안전성과 보육제공 시간의 충분성에 대한 중요도를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

다. 물리적 환경

물리적 환경에 대한 중요도 평가에서는 가구의 특성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아자녀를 둔 가정은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함(52.4%)’이 단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고,

〈표 4〉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단위: %(명)

구분	영아자녀 가정	유아자녀 가정	초등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	52.4	1.0	0.0	0.5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에 편리	0.0	6.7	6.7	7.2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	3.4	1.0	1.9	13.0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3.4	9.6	30.8	5.8
운전자들은 아이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	1.4	7.7	2.9	3.4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	7.2	47.6	26.4	8.7
마을(동네) 길은 밤에도 안전	0.0	2.9	3.8	15.9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	0.0	2.9	6.7	36.5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	19.7	12.5	4.8	3.4
육아하는 가정 수다공간/소통의 장	8.7	6.7	10.6	1.4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	3.8	1.4	5.3	4.3
계(수)	100.0 (68)	100.0 (70)	100.0 (70)	100.0 (64)

주: ‘KICCE 육아친화마을을 조성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17. 〈표 VI-2-43〉임.

집 중 조 명

다음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19.7%)'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자녀를 둔 경우는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47.6%)'이 단연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고, 다음은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함(12.5%)'이 높게 나타났다. 초등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는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가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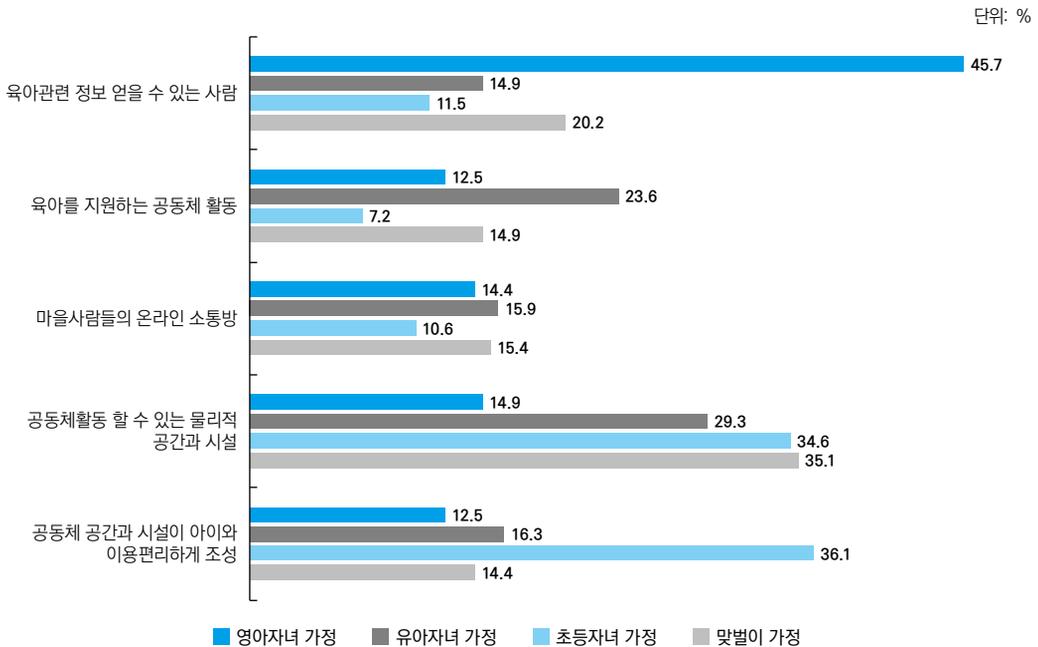
(30.8%)',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이 안전(26.4%)'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맞벌이가구를 위해서는 '유형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36.5%)'과 '아이를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13.0%)'한가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단위: %(명)

구분	영아자녀 가정	유아자녀 가정	초등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45.7	14.9	11.5	20.2
마을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12.5	23.6	7.2	14.9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이 있다	14.4	15.9	10.6	15.4
공동체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14.9	29.3	34.6	35.1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12.5	16.3	36.1	14.4
계(수)	100.0 (68)	100.0 (70)	100.0 (70)	100.0 (64)

주: 본 연구를 위한 'KICCE 육아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설문조사-인천 서구' 결과임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22. 〈표 VI-2-46〉임.



〈그림 5〉 가구 특성별로 강조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을 조성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322. 〈그림 VI-2-13〉임.

라. 인적 네트워크 형성

영아자녀를 둔 가정은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45.7%)'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고, 유아자녀를 둔 경우는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29.3%)', '마을에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23.6%)'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되었다(표5, 그림5 참조). 초등자녀를 둔 가정을 위해서는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36.1%)',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34.6%)' 등의 순서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맞벌이가구를 위해서는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35.1%)', '마을에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20.2%)'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가구 특성별로 육아친화마을 조성 분야별 중요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요구를 함께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특히 영아, 유아, 초등학교 자녀별로 신체적 발달과 활동의 독립성에 따라 보행도로의 편리성에, 혹은 안전성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정된 자원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는, 초등학교, 보육기관, 유치원 밀집 지역 등으로 공간을 특화하여 해당 부분에 수요자의 요구를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

육아친화 마을의 조성은 지역사회 내에서 현

재 시행 중인 정책의 진단과 개선요구 수렴을 통한 대안의 마련과 실행의 과정이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 육아친화성의 다양성과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체계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 영아기에는 유모차의 접근성, 유아기에는 보육 교육시설의 충분성, 자녀와 함께하는 공간 조성, 초등학생 시기에는 초등학교와의 접근성 등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요구가 있다. 자녀의 성장에 따라 육아하기 좋은 환경, 육아친화적 요소에 대한 요구가 변화한다는 것이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어느 연령대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공간의 조성과 서비스의 구성에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 정책 요구 및 지역특성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례적인 관련 정책의 진단과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자체가 육아친화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나, 점진적으로 마을의 인적 네트워크가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할 때 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체감되는 육아친화마을이 조성될 것이므로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 지원이 아니라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정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마을의 공동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 주도적으로 계획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환대(歡待)와 그 과정을 인정해주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되어야 하므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 과정에 세대 간, 기혼 집단과 미혼 집단 간 소통의 장(場)이, 참여의 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기획되고, 육아친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가 요구된다.